

〈제 4 주제〉

민족이산과 이산가족찾기 운동의 사회적 함의

전 병 재
(연세대 사회학)

민족이산의 역사적인 배경에 관해서는 이미 지난번에 다른 발표자에 의해 언급이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간단하게 훑어보는 것으로 그치겠습니다. 대개 역사적으로 살펴 보면 우리나라의 민족이산은 세 가지의 역사적인 사실에 기인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째는 일제의 식민통치기간에 나타난 것이고, 그 둘째는 8·15 해방에서 6·25 사변 이전까지 주로 월남한 분들에 의해서 일어난 사실이고, 마지막 세번째는 6·25 사변기간 중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가지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이산가족」이라 할 때 이 세 가지 사실에서 비롯된 가족 이외에도 이민이라든가 또 요즈음 우리 사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중동취업자 가족의 이산문제라든지 또 국내에서도 토지중심의 확대가족이 소위 자본중심의 핵가족화 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산현상 같은 것도 아울러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특히 여기에서 문제삼는 이산이라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류의 이산에 비해서는 타의적으로 일어난 이산현상이라는 점 때문에, 이민과 같은 자율적 이산과는 원인적인 측면에서 구별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에는 자의적인 이산이든 타의적인 이산이든 시간이 경과하면 서로가 흩어진 후에 만나고 싶어 한다는 점에서 큰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산가족찾기운동의 전개과정을 간단히 살펴 보면, 제일 먼저 생

각할 수 있는 것이, 1956년 대한적십자사가 남북이 산에 대한 접수사업을 벌인 일입니다. 적십자사는 7,084명의 신고를 받은 후에 그 명단을 적십자사 국제위원회로 발송해서 337명의 생존자명단을 통보받아서 해당 가족들에게도 알려 주고 또 언론기관에 알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1971년 8월 12일에 남북적십자회의를 우리 쪽에서 제의해서 일곱 차례의 회담을 개최한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1년후인 1973년 8월 28일에 북한측의 일방적인 중단으로 대화가 창구가 막힌 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실망한 대한적십자사는 우선 남한에 있는 이산가족만이라도 찾아야 되겠다고 해서 그해 10월부터 KBS 제1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이산가족찾기 운동을 벌인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일보사(韓國日報社)에서 전쟁고아들을 위한 부모찾아주기 운동을 1961년에 전개한 일이 있고, 또 이산가족찾기운동을 1974년부터 76년까지 100회에 걸쳐서 지상(紙上)캠페인으로 전개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으로는 이북 5도청에서의 『이북공보(以北公報)』나 각도별 『민보(民報)』를 통해서 이산가족을 찾고 싶다는 호소문들이 자주 발표되었는데, 특히 이 『민보』를 통해서 소개된 동창회, 향우회 등 각종 모임을 통해서 많은 만남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임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비교적 생활여건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태까지의 방법들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서는 1981년 6월부터 시작된 치안본부 전산설의 작업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진 상봉은 대개 27.8%의 상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산가족찾기 캠페인이 국민적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하게 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KBS TV의 이산가족찾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KBS TV의 이러한 노력을 치안본부 전산설의 작업에 비해서 능률면에서 약간 뒤지는 것이었으나만, TV 매체의 막강한 위력으로 이산가족 문제의 짐작성을 국내외에 부각시킨 데 대해서는 그 선례를 찾아 볼 수가 없는 아주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산가족찾기운동의 사회적인 한의로는 크게 세 가지를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 민족의 혈연에 대한 강한 애착을 이번 프로그램을 통

해서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두번째는, 민족분단의 아픔을 다시금 느낄 수 밖에 없었다는 點이고, 다음 마지막 세번째로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TV 매체의 막강한 위력을 직접 보았다는 점, 이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 두 가지 문제는 다른 섹션(section)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에 의해서 충분히 논의가 될 것 같아서 저는 여기서 특히 첫 번째 문제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프로를 통해서 가장 뚜렷하게 부각된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강한 혈연의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일본과 같은 자연중심의 사회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면 이번 한국에서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현대 한국사회에서 혈연 이외에 자연이라든가 학연이라든가 종교집단, 직장동료관계 등도 우리들의 사회생활에 크게 작용하고 있읍니다만 특히 우리 시민층 민중 사회에서는 다른 관계보다는 혈연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이번 프로를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학계 일각에서는 조선조 유교사상을 통해서 강화된 가족주의가 건전한 시민사회형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새로운 산업사회에서 폐쇄적인 가족주의는 하루 빨리 버려야 할 낡은 가치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교 사상을 통해서 이념화된 전통적 가족주의가 그 나름대로의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인정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나름대로의 부정적인 요소가 있기로는 서구의 개인주의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개인주의가 가족주의보다 보편적인 가치지향성과 더 친화력이 있다는 이유때문에 개인주의를 가족주의보다 더 우월시 한다면 여기에는 약간의 의문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자기 이외에는 친형제자매 조차도 남들과 같이 대함으로써 자기의 혈육을 남들보다 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보편적인 가치지향성에 더 가까운 것이라면 차라리 자기 이외의 몇 명의 형제자매라도 혈육이라는 이유로 사랑할 줄 아는 가족주의적인 삶이 훨씬 더 값진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주의 대 개인주의, 특수주의 대 보편주의에 관한 논의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중국의 춘추전국시대(春秋戰國時代)에 이미 이루어졌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양자(楊子)의 개인주의적인 유아론(唯我論)과 묵자(墨子)의 보편주의적인 겹애론(謙愛論), 이 두 가지를 다같이 비판적으로 극복하고 도덕적인 가족주의의 가치관을 정립한 맹자(孟子)에 의해서 이런 문제는 이미 체계적으로 정리된 바가 있습니다.

만일 개인주의가 보편주의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라면 가족주의라고 해서 보편주의로 연결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기적인 개인주의도 이기적인 가족주의 못지 않게 배타적이고 반보편적일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족주의의 특성으로 흔히 지적되는 폐쇄성과 이기성은 보편적인 가치를 표방함으로써 대동사회(大同社會)를 궁극적으로 지향했던 유교적인 가치체계 속에서 전개된 참다운 가족주의 본래의 특성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齊家)가 치국(治國)으로, 또 치국(治國)이 평천하(平天下)로 연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맹자에 의해서 체계화된 가족주의도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도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보편애(普遍愛)를 향해서 열려져 있는 개방적인 가치체계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전통적인 가족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올바른 가족주의와 그릇된 가족주의를 구별하지 않고 가족주의를 통털어서 이념적인 차원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경향이 강합니다. 조선조의 가족주의가 배타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장했던 것은 가족주의라고 하는 가치체계라기보다는 모든 것을 영합가정적(zero-sum assumption)으로 규정하려고 했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 당시의 사회풍조 때문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그러한 사회풍조 속에 가족주의가 아닌 개인주의가 수용되었다라면 사태는 더 심각했을 뿐지도 모릅니다. 자기중심적인 개인주의보다는 가족성원들과는 그래도 무 조건적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가족주의가 차라리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보편애로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인류의 보편애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기로부터 가까운 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보편주의라는 것은 추상적인 관념들에 그치기가 쉽습니다. 가족적 특수주의와 인류애적인 보편주의는 결코 서로가 차단된 배타적인 가치체계가 아닙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콩트는 인류진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3 단계 법칙을 발

전시킬 바가 있읍니다만 그 법칙에 의하면, 첫째 신학적 단계에서는 가족이 전형적인 사회단위이고, 둘째의 형이상학적 단계에서는 국가가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부각하고, 또 제3단계의 실증적인 단계에서는 전인류 공동체가 실질적인 사회단위로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그가 말하는 현대사회와 같은 실증주의 단계에서는 가족과 국가가 완전히 소멸된 후에라야 인류의 보편애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인류의 보편애는 훌륭한 개인, 그리고 충실한 가족과 국가의 기초 위에 서만 가능한 것인지 하는 점입니다.

적어도 맹자에 의해서 체계화된 가족주의적인 가치체계에서 본다면 참다운 개인주의와 참다운 국가주의는 보편주의와 서로 엇물린 개방체계이지 이각 주의가 배타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읍니다. 이렇게 볼 때 올바른 가족주의는 올바른 개인주의와 윤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필수적인 가치체계이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족주의를 문제삼는 사람들은 잘못된 가족주의는 나쁘다는식의 순환론적인 오류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읍니다.

이번에 방영된 TV의 이산가족 프로를 보고 다같이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예마른 현대사회에서 잃었던 형제자매를 다시 찾고 흘린 눈물은 내 가까이에 있는 형제자매조차도 잊고 정신없이 살아왔던 우리 모두들에게 혈육의 정(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새삼 일깨워준 귀중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에 우리 모두가 다 감정적으로 동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를 계기로 꼭 계속 추진되었으면 하는 사업이 있다면 그것은 이번에 이산가족찾기운동이 형제애는 곧 동포애와 인류애로 통하는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잃었던 형제를 다시 찾은 환희를 바탕으로 해서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차원에서만 떠들어 왔지 실질적으로는 외면되어 온 실천적인 동포애와 인류애를 우리 가슴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열어 보이는 일이라고 하겠읍니다. 이번 프로를 통해서 제기될 수 있는 두번째 문제, 즉 조국분단의 아픔과 관련되는 논의와 세번째의 TV매체의 위력에 관한 논의는 다른 주제발표에서 충분히 다루어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언급을 생략하기로 하겠읍니다.

〈제 4 주제토론〉

사회 : 김 채윤(서울대 사회학)

토론 : 오 상원(동아일보 논설위원)

이 온죽(서울대 사회학)

홍 두승(서울대 사회학)

정 철수(경북대 사회학)

사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발표된 주제논문을 중심으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전교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세 가지의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하나가 우리 민족의 혈연에 대한 강한 애착, 둘째가 민족분단의 아픔, 세째가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TV 매체의 막강한 위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논문이 완성되기 전에 토론자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아주 안성마춤으로 토론자가 선정된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민족의 혈연에 대한 강한 애착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토론자로 나오신 이온죽 교수가 바로 가족문제 특히 북한의 가족문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신 분이니까 바로 이런 주제를 논의하기에 적합한 분이고, 또 두번째는 민족분단의 아픔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오상원선생께서 동아일보의 논설위원으로 계십니다만 6·25 분단의 아픔을 만인을 울리는 소설로써 발표한 바가 있읍니다. 민족의 아픔에 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세번째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TV 매체의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바로 경북대학의 정철수교수께서 또 이 문제를 전공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계신 홍두승교수께서는 사회계층론 혹은 불평등론 특히 그 가운데에서 주로 북한에 있어서의 계급 혹은 사회계층에 관해서 깊은 공부를 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토론자 모두가 이 논문을 둘러싸고 중요한 문제들을 깊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형식에 얹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는 그런 절차를 취하겠습니다.

먼저 오선생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상원

사실 이 산가족문제는 저희들이 말 안 해도 이미 전부 느끼고 있는 문제이고 아까 여기에서 일본과 같은 자연사회에서는 우리처럼 그렇게 가족의 이런 것을 느낄 수 없느냐 이런 얘기가 조금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일본도 벌써 몇년전부터 2차대전 직후에 중공에 버리고 온 자식들을 찾기 위한 운동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찾기운동은 38년만에 이번에도 연말을 기해 부모를 찾고 만나는 등 일본신문을 보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우리 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도 인간인 이상 헤어진 가족을 찾으려는 마음은 꼭 같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단 일본에서만 아니라 2차대전 때 나치독일에 쫓겨서 산산히 헤어졌던 유대민족들이 종전후에 다시 혈연을 찾아서 서로 만나고 하는 그런 것도 많이 들려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육을 찾는다는 것은 인류의 공통되는 하나의 애정이 아닌가 합니다. 동물도 마찬가지겠읍니다만 더구나 우리 인간에게는 마음, 의식 이런 것이 있는 이상 더 이런 문제가 절실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가족주의와 개인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동양사상이라는 것은 먼저 가정 또는 가족 등등 보다는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나과를 사랑하는 마음은 다 마찬가지지만 동양에서는 먼저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데 서구에서는 먼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식들을 사랑하면, 바로 내 자식들과 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사회를 사랑하게 되고 나아가 나라를 사랑하게 된다는 개인에서 출발해서 전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체를 먼저 내세우고 개인은 뒤로 돌아 가는, 물론 궁극적으로 가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개인주의를 자꾸 욕하곤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개인주의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보다 더 큰 전사회, 전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즉 동양적인 우리 사고에서 자꾸 가정주의, 가족주의보다는 개인이라는 것을 좀더 존중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급적 말을 안하는 것이 명사라는데 제가 잠깐 시간이 많을 것 같아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신생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발표자께서 발표한 논문의 중요대목의 하나입니다. 개인과 국가와 사회를 대비시키는 그런 벼류이 있읍니다만 제가 옛날에 읽은 책 가운데 『충성십의 양극화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소속하고 있는 자기 집단에 최대한의 충성을 보낼 수 있는 집단은 두 가지 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가족과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행위도 불사한다는 것을 희생정신이라고 한다면, 이를테면 불이 붙은 방속에 누워 있는 자기 어린애를 위험을 무릅쓰고 껴집어 낼 수 있는 것, 이것은 가족을 위한 희생정신이며, 또 국가를 위해 생명을 바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내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든지,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번영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겠다는 그런 충성십을 발휘하는 경우는 드물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족을 위한 충성십, 국가를 위한 충성십이라는 것을 극단적으로 대비시킨다는 것은 조금 다시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게 오신생님의 말씀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면 다음 가족에 대해서 이온죽선생께서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이 온죽

전선생님께서 정리를 잘 해 주셔서 더 이상 덧붙일 말을 별로 찾을 수가 없겠습니다. 개인주의와 가족주의에 대한 것은 전선생님도 발표문에서 논의를 하셨고, 오신생님도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전선생님이 지적하신 점을 부각 시켜 보겠습니다. 맹자가 말씀하신 것을 가족주의와 개인주의는 절대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점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주의가 우리 사회에 바람직한 것이냐 개인주의가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논의는, 이것 말고도 서구의 외래적인 문화와 우리의 전통적인 요소 중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하냐 하는 것으로 여러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 오고 있는데, 대개 형태를 보면은 어느 한쪽을 강조한 나머지 상당히 배타성을 띠는 그런 경향을 보여 주고 있읍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해 볼 때에 어느 시대건, 어느 문화건,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데에서 물고기가 잘 서식을 하고 번영하는 이치와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문화들이 접촉을 하면서 활발한

교류를 가질 때 더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견지에서 전선생님이 말씀하신 가족주의나 개인주의는 배타적이 아니다 하는 점에 저도 동의를 표하면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산가족찾기운동 TV 화면을 보고 느낀 것이, 우리 나라의 가족주의적인 전통, 혈연에 대한 애착심이 강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반드시 가족주의적인 전통에 기인한 것으로만은 볼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냐하면 가족주의적인 전통뿐만 아니라 현대사회 특히 오늘날의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요소, 그러니까 과거의 정(情)을 중심으로 한 게마인샵트적인 요소가 점점 없어져 가고, 종속적이고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사회, 게젤샵트적인 그런 요소가 지나치게 있다고 보니까 모든 인간관계가 정을 중심으로 한 원초적인 관계보다는 2차적인 관계로 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에 상당히 주려 있어, 전선생님께서도 메마른 현대사회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사회에서 만족할 수 없는 경시적인 욕구, 경적인 욕구, 가정에 대한 주립, 이런 것이 이산된 가족을 만남으로써 충족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혈연에 대한 욕구가 증대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산을 통해서 우리가 생활구조적으로 또 생활문화적으로 조명해 볼 때 현대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데에서 반성이라고 할까요, 성찰을 하는 계기가 됐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웃이, 친구가, 혈연처럼 좀 더 정을 줄 수 있고 또 우리가 상대편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이웃이나 친구에게 혈연과 똑같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였다면 그렇게까지 아주 절실하게 혈연을 찾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혈연이 그렇게까지 강한 흡인 작용으로 나타났을까 하는 그런 일반의 현대사회가 갖는 인간소외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렛 미드(Margaret Mead) 같은 인류학자는 가족을 중심으로 한 대가족제도와 개인을 중심으로 한 핵가족제도 양자가 모두 장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보완하는 제 3의 패턴이라는 인간가족의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뉴 커뮤니티(New Community)나 새로운 공동체로서 반드시 서로 혈연이 아니더라도 인간적으로 정을 나누고 원초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서로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어떤 지역을 이루어 살자는 이유에서 인간가족이라는 얘기를 했읍니다. 그런데 이산된 가족들이 전부 재결

합할 수 있다면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지마는 한국에 흘어져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찾기가 어려운데 북한에 나누어져 있는 가족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정치적인 것이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적인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실마리를 풀어내기가 현재 상태로는 비교적 부정적이라는 비판론을 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면 차선책은 무엇이겠는가 하는 면에서 이런 인간가족적인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이번 KBS 캠페인을 통해서 가족이 재결합하는 경우라도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인 환경에서 자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재적응문제가 생기지요. 벌써 어떤 문제가 생긴 케이스도 많다고 합니다만 찾아주는 데에만 의의를 찾을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문제도 상담을 해주고 계속 후원해 주는 그런 메카니즘이 있어야겠고, 또 이런 혈연에만 매였을 경우 상당히 생활환경이 배타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연에 기대하는 요소들을 혈연뿐만 아니라 그 외에 이웃이나 친구 동료를 통해서 그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산가족찾기 화면을 보면 특히 여성들이 그 만나는 순간에 상당히 극적이고 아주 절실했던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물론 여러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요. 여성들이 남자보다 더 감정적이라든지요. 그러나 곰곰히 생각을 해 보면 물론 이것은 비단 한국 뿐만이 아닙니다마는 대체로 우리 사회에는 가부장적인 제도가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부장적인 제도 아래서 사회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남녀역할을 뚜렷하게 분리할 뿐만 아니라 성격이나 결까지도 분리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성일 경우 대개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성향을 심어주며 그런 행동을 기대하고 그런 기질을 바람직한 것으로 고정관념화 시키는 반면 여자의 경우는 오히려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그래서 옛날 말에 여자가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면 팔자가 드세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남녀의 기질을 다르게 사회화시키는 경우, 물론 가부장제도를 존속하는 데에서 여성을 통제하기가 상당히 쉬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문제는 어떤 타의에 의해 전쟁이라든지 천재지변이라든지 하는 위기상황에서 남녀가 잘

라쳤을 경우 성격적으로 다르게 남녀를 사회화시켰기에 여자에게 주는 고통이라는 것은 더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그 고통 속에서, 역경 속에서 여러 가지 일에 부딪히면서 혼자, 남자없이 생활하면서 한(恨)이 쌓이고 응어리겼다가 그렇게 친족을 만나는 순간 모두 터뜨려져서 일종의 카타르시스적인 표출이 더 강력히 나타난 것이 아니냐 하는 점에서 사회구조적인, 가치규범적인 차원에서 그 점을 해석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회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두 분께서 토론에 참여하셨습니다만 오선생님과 이선생님의 말씀은 발표논문에 대한 어떤 논평이라기보다는 보충설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 내용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대립이 된다든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가운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결국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한국의 가족주의와 서구의 개인주의, 이것을 다른 말로 특수주의와 보편주의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계십니다마는, 이 두 가지가 대조 내지는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는, 즉 세 분 말씀이 다 서로 통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마루에 앉아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해설을 붙인다면 보편적, 특수적 하는 개념은 사회학적인 개념으로 상당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쉽게 말씀 드린다면 규범인데,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평가나 대접이 철저하게 개인의 능력, 업적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고, 특수주의라는 것은 가족이나 씨족(氏族)과 같이 한 사람이 놓여 있는, 즉 자기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에 따라서 불평등하게 대우한다는 규범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보통 특수주의와 보편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것을 조금 곁들여 해석한다면 이 두 가지 규범이 결코 상반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세 선생님들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두 가지의 규범에 각각 적용되는 분야가 구획(區劃)되어야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아무리 개인주의가 지배적인 사회라고 하더라도 가정 내부에서 조차 개인능력 위주의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집안은 몽땅 집안이 되고 맙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는 무식하고 아이들은 공부를 잘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아버지 위에 군림을 한다든가 하는 그게 바로 개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보편주의가 지배적인 사회에 있어

서조차도 가족은 씨족내부에 있어서도 사적(私的)인 영역이라고 하지요. 여기에서는 역시 특수주의가 정신적인 규범이 되어야겠습니다. 능력없는 아버지는 집지키고 앉아 있고 능력있는 아들은 벌이를 하는 그것이 올바른 개인주의입니다. 이 두 가지가 무분별하게 혼동되는 것에서 큰 혼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사회에서 큰 문제점이 많다고 합니다만 이런 두 가지 규범이 철저하게 구획화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세 선생님이 하신 말씀과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홍두승교수께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홍 두승

그간에 깊은 기초연구도 않은 상황에서 이 산가족문제를, 특히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보시고 좋은 문제점들을 많이 제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비단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다같이 생각해 봐야 할 그런 문제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 토론을 의뢰받고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만 마침 오늘 이 자리에 앉으니까 사회자선생님께서 의무분담을 적절히 해 주셔서 다른 얘기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할 부분은 보편적으로 이야기해서 사회계층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이것과 관련해서 이 산가족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제 자신은 이 산가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산가족의 문제를 그렇게 피부로 느껴 본 적은 없읍니다만 지난번 KBS에서 방영이 된 이후에 어떻게 이상하게 프로에 마음이 끌려서 장시간 보다가 나름대로 울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피부로 느끼는 몇 가지 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하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거기에 등장하신 분들이 상당히 웃차림이 남루하신 분들이 많았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하면, 전병재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 가운데 이 산가족찾기운동이 이번에 KBS에서 최초로 시도한 것이 아니고 그간에 여러 기관에서 여러 방면으로 많은 노력들을 해왔는데 왜 이번에 이 산가족의 문제가 국가적인 그런 주요 논쟁으로 두드러지게 등장했는가 하는 문제부터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간에 여러 기관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의 경우가 상당히 효율적이었고 또 흔히들 말하는 ‘매스콤을 탔다’는 얘기인데, 그

것을 가만히 따지고 보면, 지금 얘기하신 바와 같이 역시 이러한 모임이나 그리한 운동에 참가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비교적 생활여건이 좋았던 사람들이다 하는 얘기로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결국 지금까지 분단된 이후에 한 30여년간 이것 저것 할 거를도 없이 우선 먹고 사는 데 바빠서 모두 신경을 쓰지 못했다가 지금에 와 가지고서 서서히 먹고 사는 문제는 조금 해결이 되어 나가고 그 다음에 그 계제에 마침 범사회적인 이러한 운동이 전개가 됨으로써 그것이 정확하게 일치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읍니다.

이 산가족의 문제라는 것은 매우 복합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의 사회계층적인 요인으로만 이해를 하고자 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읍니다. 하지만 이러한 측면에서만 본다면 결국은 상당수의 많은 이산가족들이 우리 사회에서 그간에 하나의 소외된 계층 혹은 사각(死角)계층으로서 —데드 앵글(dead angle)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사격을 하더라도 잘 맞지 않는 지대가 있듯이 말입니다— 잘 뛰지 않는 그러한 분들인데 사회에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쉽게 세인의 눈에 잘 뛰지 않는 그러한 층들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얘기를 다시 돌려서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이러한 범국민적인 모임이나 운동에 관여하지 못하는 또 다른 사각 계층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통계를 보니까 등록된 이산가족이 약 10만가구가 되는데 물론 이러한 모임을 잘 알지 못해서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읍니다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먹고 살기가 바빠서 여기에 언감생심(焉敢生心) 생각조차도 못하는 그러한 층이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 아직도 많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해 보았읍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것은 반드시 보편적인 문제는 아니겠읍니다마는 역시 이것도 피부로 느껴지는 그러한 문제 중의 하나로 생각이 되는데 만난 후의 문제입니다. 제가 TV로 봤읍니다마는 가족 하나 하나가 뿔뿔이 흩어진 그러한 가족도 있고, 또 어떤 가구의 경우에는 잠깐 화장실에 갔다가 잊어 버렸다는 얘기도 나왔읍니다. 한 가족내 다른 사람들은 다같이 뭉쳐 있는데 하나 내지 둘이 별도로 떨어져 헤어진 경우가 있는데, 헤어진 이후 한 덩어리로 뭉쳐 있던 가족들은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자 떨어져서는 고아원에서 지내든가 교육도 잘 받지 못하고, 직업에 귀친이 없겠읍니다마

는 경제적인 보상이라든가 하는 면에서 볼 때 낫은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요. 지금 현재 만난 후의 양쪽 사정을 보면 한쪽은 제법 집도 그런대로 살림살이를 놓고 잘 꾸미고 살고 있는데 한쪽을 보면 거지신세에 있다.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형제, 부모, 자식이라고 얼싸안고 그러지만 이산가족의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벌써 하나의 가족이라는 또 다른 사회 단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보면 개인의 경우에는 가족이라서 반갑고 강한 혈육의 정이 나타나겠지만 나머지의 사람들을 둘러 싸고 있는 가족성원들의 경우에는 이미 자기 혼자가 아니라 벌써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생기고 그 밑에 자녀들이 생기고 해서 사회계층에서 볼 때 벌써 층이 다른 생활수준을 갖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초기단계에서는 만나서 반갑고 얼싸안고 그러겠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심리적이나 갈등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될 점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른 계제겠읍니다마는 제 자신이 앞으로 얼마동안 실제로 그 관계를 실증적으로 조사를 해보려는 그러한 연구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만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될 것인지는 아직 잘 생각이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회

과연 계층론자답게 계층을 중심으로 말씀을 잘 해 주셨읍니다. 정철수선생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지요.

정 철수

아마 여기 토론에 참여하신 분이 전부 서울에 계신 분들인데 저는 유일하게 시골에서 온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번 캠페인운동에 관해서 서울 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도 들어 보자 하는 주제 측의 배려도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제가 막상 오늘 아침에 자리에 와 가지고서 사실 텔레비전을 통해서만 보던 그러한 이산가족들의 풋말, 거기에 적혀 있는 이산가족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서 정말 이산가족찾기운동을 실감하게 되었읍니다.

사실 아까 TV 매체의 위력이라고 진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텔레비전매체의 위력이 있었기 때문에 제 자신 한 500리 떨어진 먼 대구에

서도 이산화합의 생생한 광경을 우리가 볼 수 있겠지 않느냐는 것을 생각할 때 TV 매체가 과연 위력을 발휘했다는 생각을 또한 해 봅니다.

다음 분과에서 말씀을 하기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텔레비전을 비롯해서 매스미디어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에 의해서 초창기부터 긍정적인 기능과 부정적인 기능의 찬반양론이 극심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기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텔레비전은 시시각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경을 제시해 줌으로써 여론을 형성하고 민주주의에 큰 보탬이 되었다고 평가를 하는가 하면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텔레비전은 여러 가지 범죄라든가 비행 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비판 또는 사고기능을 마비시켜서 텔레비전이 마치 바보상자와 같다고 지칭합니다. 한편으로는 텔레비전은 천사와 같이 여기고 한편으로는 텔레비전을 악마와 같이 평가하는 상반된 견해가 끊임없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학자는 텔레비전을 원자력에 비교하여 텔레비전을 평화적으로 잘 활용을 하면 인류평화에 원자력만큼 기여를 할 수 있는가 하면, 이것을 악용하면 인류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마치 원자탄이 태평양전쟁 때 일본의 히로시마에 떨어진 것과 같이 그만큼 사회적으로 커다란 해독을 끼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반된 견해가 격론을 거듭해 왔읍니다마는 이번 KBS에서 전개한 이산가족찾기 운동은 정말로 텔레비전이 우리 사회에서 필요하고 정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긍정적인 효과 기능을 유감없이 발휘한 아주 좋은 운동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

감사합니다.

네 분 선생님들의 토론을 종합하셔서 발표자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히 해 주시지요.

전 병재

사회자 선생님까지 포함해서 다섯 분 선생님들의 좋은 말씀을 참고로 해서 제가 여기서 개략적으로 언급했던 문제들을 앞으로 좀더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얼마의 시간이 걸릴런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만 가족주의와 개인주의는 상대적이고 배타적인 가치체계가 아니며, 훌륭한 개인과 충실한 가족, 또 튼튼한 민족의 기반 위에 비로소 보편적인 인류애가 가능하다고 하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도 개인주의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에밀 뒤르켐 같은 사람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의 개인주의를 이기적인 개인주의로 규정하고나서 개인주의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이기적인 측면이 나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기적 개인주의를 이와 같이 비판 후에 그는 이기적 개인주의를 어떻게 하면 도덕적 개인주의로 전환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을 문제 삼은 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문제되고 있는 것은 이기적인 가족주의이지 가족주의 그 자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 들으면 가족주의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오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기적인 가족주의를 도덕적인 가족주의로 가치정립을 새로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좀 더 잘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결국 이기적인 개인주의를 도덕적인 개인주의로 바꾸고 이기적인 가족주의를 도덕적인 가족주의로 바꾼다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문제는 개인주의와 가족주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기주의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이고 폐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을 어떻게 하면 도덕적이고 개방적이고 보편애적인 가치관으로 전환시키느냐 하는 것이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절실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나 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에서 그래도 보편애로의 지향성의 싹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가족 속에서 나 아닌 형제자매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우리가 인류애의 싹을 희망적으로 엿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러한 가능성은 우리가 충분히 목격했다는 점에서 이 프로의 의미를 좀 더 강하게 부각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기주의에 비판적인 입장은 맹자(孟子)가 양혜왕(梁惠王)』 첫 귀절에 “왜 하필 리(利)를 말하십니까? 이 세상에는 공의(公義)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데 왜 사리(私利)를 말하십니까? 왕이 리(利)를 논하면

서 내 나라 중심적인 주장을 하면 사대부(士大夫)는 내 가족중심적인 생각만 하고 선비들은 자기중심적인 생각만 해서 이 나라가 안됩니다"라고 한 말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이(利)를 추구하지 말고 공의(公義)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은 별씨 맹자가 강하게 주장한 바가 있는데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공의를 중시하는 사상입니다. 맹자의 이러한 사상이 소위 가족주의에 그대로 포함이 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잘 새겨 보면 우리 전통 사회에서 이념적으로 잘 정제되어 온 올바른 가족주의라는 것은 충실히 개인을 강조하는 올바른 개인주의와 인류애로 나가는 보편주의와 절대로 배타적인 가치관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프로의 제목이 이산가족찾기운동으로 되어 있고 이번 심포지움도 이산가족찾기운동으로 되어 있읍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이산가족찾기운동에서 이 운동의 의의를 한 단계 더 확대하여 올바른 가족찾기운동으로도 이 정신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살고 있으면서 가족적인 가치를 과소평가한 나머지 가정생활을 올바른 가족관으로부터 이탈시켜 버리고 잘못된 가족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이런 기회에 올바른 가족찾기운동의 전개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좀 더 이것을 근본적인 차원으로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가족찾기운동에서 '나찾기운동', 즉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참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올바른 자기찾기운동으로도 연결시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산가족찾기운동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직접 목격한 만남의 환희 또 형제의 뜨거운 정 이런 것을 토대로 하여 현대사회에서 문제되고 있는 비인간적인 측면들이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을 잘 정리해 보면 우리가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 특히 사랑이 없어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즉 대결의식과 폭력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원천적인 열쇠를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구체적인 실천적인 사랑의 문제를 너무 경시하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경향을 강하게 띠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너무 우리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추상적이고 어려운 차원에서 탁상공론식으로 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다시 환원을 해서 나의 문제, 가족의 문제, 또 민족의 문제, 인류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분명히 파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저는 이번 이산 가족찾기운동 프로그램을 보면서 장면 장면의 뜨거운 감격들을 좀 더 순화를 시키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대병을 치유하는 데 상당히 좋은 약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

사회

마루에 계신 여러분들로부터 세 분 정도 질문을 받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받기 전에 제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가족찾기라는 것은 결국 혈연찾기인데 그러면 지금 이산되어 있는 가족들이 모두 다 만났다라고 했을 경우 문제는 다 해결되느냐?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서울에 와서 산 지가 30년이 됐는데 제가 꿈을 꾸면 서울 꿈은 한번도 꾸지 않습니다. 제가 자라던 시골 꿈을 꾸는데요, 제가 어릴 때 여자친구하고 소꿉장난하던 일이 있습니다. 꿈에 나타나는 것은 소꿉장난 하던 여자친구의 얼굴이 아니라, 여자친구와 소꿉장난 하던 장소입니다. 어느 바위 밑에서 소꿉장난을 했다던가, 어느 큰 벼드나무 밑에서 했다던가 어느 혀간에서 했다든가 말이지요. 말하자면 지역에 대한 애착, 땅에 대한 애착, 이게 피에 대한 애착에 못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으로는 거기에 대한 애착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월남한 이산가족 모두가 혈연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역시 민족의 슬픔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중국본토출신 큰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면 모두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제가 관상장이가 아닙니다마는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우리 나라 타관에 와서 사는, 중공 본토에 갈 수 없는 그런 그들의 얼굴이 늘 수십에 차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월남한 이북 분들이 설사 가족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슬픔은 가셔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이북에서 내려 오신 우리 친구들한테 굉장히 동경을 합니다.

이제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만 주로 우리 민족이 산의 생생한 장면을 직접

목도하시고 또 그런 것을 좋은 글로 많이 쓰신 오선생님을 중심으로 주로 질문이 나왔으면 이 모임이 훨씬 더 생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시간관계로 세 분 질문만 받겠습니다.

이 기동(연세대 학생)

먼저 오늘 주제가 「민족이산 현실과 과제」인데, 전선생님의 논문의 주제가 사회적 합의라는 뜻에서 이론적인 것으로 많이 치우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심포지엄의 큰 주제가 현실과 과제 그러니까 사회과학의 현실 참여 내지는 사회과학의 사회에 대한 봉사 등에 대한 길을 찾는 것 같은데, 먼저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갖게 되구요.

그 다음에 사회자이신 김체윤선생님께서 개인주의와 혈연주의가 서로 맞물려 있다 하셨는데 문제는 적용을 할 때 어디에 구획화시키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민족이산에 대해 무엇이 적용될 수 있으며 무엇을 적용시키는 것이 이산가족들의 결합에 더욱 효과적인 사고방식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을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오선생님께서 혈육을 찾는 것이 인류의 보편적인 특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개별화시켜서 생각할 때 혈육을 중요시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도 물론 있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 이 개인 내부에서 소외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름대로 소외를 극복하려고 애를 쓴다고 할까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인류발전의 한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홍선생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서 제가 약간 의문을 갖는 것은 북한은 거의 그렇다고 저는 들어 왔지만 남한에 국한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산가족찾기를 비약해서 전체적인 이산가족찾기 곧 통일을 바라지 않는 계층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을 학생사회나 사회내에서도 들을 수 있는데 이것이 정말 맞는 이야기인지 아닌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전선생님에게 질문할 것이 있는데 TV미디아의, 다음번에 논문을 발표하실 것이지만, 특히 TV의 궁정적인 기능이나 부정적인 기능에 대해서 약간 언급하셨는데, 그것은 TV 자체의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지적 수준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

제가 세 사람의 질문을 받겠다고 했는데 한 사람이 열 가지 질문을 한다면 30명이 하는 것이나 세 사람이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질문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일일이 시간관계상 답변하기가 곤란할 것 같아요. 질문 한 학생이 관심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만나서 질문하기를 바라고 오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오 상원

지금 학생께서 사람이면 헤어진 혈육을 찾게 마련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 않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이 사는 사회에 도둑놈들이 다 있지요. 미국에도 있고 소련에도 있고 어느 사회에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혈육을 찾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론적으로 인간적인 면에서 생각할 때, 그래도 헤어진 형제 혈육을 찾으려는 그 마음가짐, 이것은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 중에서 찾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할 수 없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

또 질문? 네, 뒤의 학생.

이 해영(전국대 학생)

전병재 교수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산가족 찾기 운동의 전개과정에서 원인별로 세 가지로 나누셨습니다. 첫번째는 만날 수 없는 공산주의권에 들어간 이 산가족, 두번째는 상대방이나 일방에서 만나기를 회피하는 사람, 세번째는 경제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만날 수 없는 이런 세 가지로 나누셨는데요. 그중에서 세번째에 관련해서입니다만 우리나라의 옛 말에 “모르면 약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경제적으로 찾을 수 없는 이 산가족을 KBS에서 밝혀 냄으로써 이 산가족의 아픔을 더 현실화시켜 그 사람들한테 다른 여전까지 아픔을 더 많이 주지 않는가 그러한 문제를 느끼게 되는데요.

그 질문하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 정책을 보면 인구억제책으로 자연적인 증가를 막기 위해서 둘만 낳기 운동에서 다시 한 자녀 낳기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이 산가족 찾기 운동으로 인해 가지고 인위적인 증가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기우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김체운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혈연보다는 지연관계 그런 것은 약간 논센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족형성을 하려면 지연이 있어야 하고, 혈연이 있어야 되고, 같은 문화가 있어야 되고 세 가지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지연이나 혈연이나 특별한 하나를 강조한다는 것은 보편적인 것을 버리고 한 가지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약간의 모순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사회

전선생님, 대답하시지요.

전 병재

모든 사건이 양면성이 있는 것이지요.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번 KBS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백 가지 점 중에서 백 가지가 다 좋기만 하느냐하면 그렇기가 힘들지요. 그 중에서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학생이 얘기하고 있는 점도 포함시킬 수가 있겠는데 물론 잠자고 있는 아픔을 일깨워 준다는 그런 면도 없지 않겠읍니다만 그런 문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은 좀 더 큰 긍정적인 소득에 비하면 그렇게 큰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형제의 사랑을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인구억제책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하나만 낳자라고 하는 운동에 역행되는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인데, 글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도 연결될 수 있겠읍니다만 이 프로그램을 인구정책에까지 연결시켜서 그런 나쁜 면도 있다고 보는 것은 너무 이번 프로그램을 비판적으로 보기로 작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나쁜 점을 자꾸 생각하면 얼마든지 생각이 될 수가 있겠읍니다만 큰 취지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이러한 자그마한 문제들은 무시를 해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성개발원 질문자

저는 질문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코멘트로, 가족문제로 보아서 가족문제 하나를 넣으셔 가지고 구체적으로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가족을 만난다는 것, 그 동안 헤어졌다가 만난다는 것 그 자체는 굉장히 뜻이 있지만, 만난 후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든지, 어떠한 효과가 있

다든지,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만나 가지고 그 순간만 그런 느낌이 있었지 그 후에는 어떠한 일이 생겼는지 아까 홍두승선생님 말씀하신대로 계층별 차이로 인해 격리감이라든지 무슨 갈등 이러한 것이 생길 수 있는 것이라면 앞으로 만날 가족들간의 문제점 등을 좀더 가족을 중심으로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 한마디 말씀드립니다.

사회

전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전 병재

제가 이 산가족찾기운동을 좀더 확대해서 가족찾기운동으로서 연결시키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바가 있읍니다만 사실 우리 현대사회의 가족을 보면 몸은 같이 있어도 마음이 이 산이 되어 있는 가족들이 많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좀더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한된 시간과 지면을 통해서 제가 이 문제와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들 중에서 다루고 싶은 점들을 다 언급을 못한 점이 많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그런 점들도 앞으로 있을 연구와 관련시켜서 좀더 체계적으로 논의가 됐으면 하는 좋은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사회

예정시간이 지났습니다. 바깥 날씨는 좋습니다. 오랫동안 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분과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으로 이번 분과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